

## 오륙도 칼럼



박 태 욱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분다. 산자락 밑에 사니 낙엽 켜우는 것도 쉬 볼 수 없다. 일기 예보는 수일 내로 예년의 평년기온을 찾겠다고 하는데 해가 지면서 불어가는 바람은 오히려 애잔할까 지 자아내게 했던 지난 며칠간이다. 하지만 오늘은 햇살이 따스하다. 문득 화단 앞에 쪼그려 앉으니 바람은 백곡이 익어가는 냄새를 싣고

어딘가로 불어간다.

나이가 들어가니 햇살도, 하늘도, 바람도, 백곡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익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바르게 표현하자면 연륜이라 해야 옳을 게다. 지나온 삶을 녹여서 지혜를 익히니 가을의 '풍요'는 그것까지 포함한 말일게다. 햇살 아래의 내 마음도 그러하다. 아파트 현관이고 화단이고 계단 창틈에도, 담배꽂초랑 쓰레기 버리지 말아달라고 스피커로 방송을 수차례 하고 알람방을 써 붙여도 여전하다.

1층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옆집 아저씨와 늘 그것을 주워서 치우다 보면 은근히 화가 날 때도 있다. 사람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을 저지르는 세 가지 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다.

## 가을 햇살 아래서

담배꽂초도 쓰레기이고 재미로 그런 짓을 하든, 억하심정에서 그러든, 습관이든,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든, 언젠가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겠지 하며 독기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운다. 어찌면 행세게나 좀 탄답시고 옹고 바른 소리를 하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내가 낸데' 하면서 불쾌해 하는 나이 먹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담배꽂초는 치우면 되지만 '내가 낸데'는 누가 치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앞에서 서슴없이 담배를 꺼내 피우는데 눈에 띄지 않게 그 죄를 저지르니 그나마 손톱만큼의 도덕심은 있는 편이다.

어느 날의 뉴스에는 담배꽂초 왜 버리느냐고 꾸짖는 연료하진 할머니

에게 주먹질한 젊은이도 있는데 뭐. 어느 날의 뉴스에는 전철 안에서 자리 때문에 새파란 아가씨가 노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었는데 뭐. 이러한 세태에 대해 어떤 전문가는 한 아이만 낳아 제대로 키우자고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전문가는 10대 또래의 남녀 학생이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게 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도 한다. 무슨 말이나 하면, 서구문화의 유입이 너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전통 가치관이 짧은 세월에 마구 파괴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유유서서 뭐며, 삼강오륜이 뭐냐는 거다. 하긴 2, 30대 젊은이들에게 삼강오륜이 뭐냐고 물으면 혹 올림픽 마크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까짓것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어른 눈치는 왜 보냐는 거다. 그래.

우리의 전통 가치관이 그렇게 어리고 경박해서 짧은 세월에도 그리 쉽게 서구문화에 무너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몰지각을 넘은 패륜만 남았던 말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충격적이거나 가슴가려가 되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건강하다. 아니 남의 허물이 열 가지면 내 허물은 백 가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사회다. 그 사실을 자각자근 일러주느라 이 햇살이 따사로운 거다.

그러나 곧 겨울이 다가오는 것도 별 걱정이 들지 않는다. 다만 숨이 막힐 정도의 지난여름처럼 올 겨울이 혹독하게 추우면 어쩌나 싶다.

하긴 누구는 보일러 펄 형편도 안되고, 누구는 전기장판조차 틀지 못하고, 누구는 지치고 병든 몸을 약에 의존하며 근근이 하루를 지탱하고, 누구는 코흘리개 동생을 돌보느라 어른보다 더 힘든 청소년기를 견뎌야 하고, 누구는 온종일 잠입한 방에서 짧은 날을 독백처럼 곱씹으며 해수 긴 회한에 잠기고, 누구는 감지 반찬 하나에 늦은 점심을 저녁 겸해서 먹어야 하고, 누구는 아직도 연탄을 때기도 할 텐데...

참, 문현동의 연탄공장에서 하루 7만장 정도의 연탄을 생산해서 부산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현동이나 남구에는 몇 가구나 아직도 연탄을 팔까? 그래도 다가오는 겨울을 잘 나도록 미리 둘러보거나 도와주는 정 많은 분들이 참 많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과 향기로운 바람처럼 넉넉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든다.

소설가

## 신선대

<213>

채 규 종



아동학대 신고는  
1577-1391

▶ 학대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선용의

1000자 지혜

113

## 진정한 효도

세상이 무섭다. 젊은 아이들이 겁난다.

부모나 선생님이 말해도 잘 따르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나쁜 짓 하는 것 보고도 말하거나 꾸짖었다간 봉변은 말할 것 없고 난쟁을 당할 수도 있어 아예 못 본 체 하고 자리를 피하기 일쑤다. 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눈물과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는커녕 구박하고 구타하고 살해까지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이 잘못 보아 다치게 했다고 시어머니 뺨을 친 무서운 며느리도 있다.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뻔뻔스럽게 하는지. 말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해진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고 무서워진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며 진정한 효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자. 노(魯)나라 영주 애공(哀公)이 하루는 공자(孔子)에게 물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효도인가?” 그런데 공자는 대답이 없었다. 애공은 공자가 듣지 못한 줄 알고 다시 물었다. 그래도 공자는 대답이 없었다. 초조해진 애공이 좀 더 큰 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물

었다. 그래도 공자는 조금 입을 벌렸다가 말고 말이 없었다. 공자는 애공 앞에서 물러나 제자인 자공(子貢)에게 이렇게 물었다. “임금이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효도인가?」하고 세 번이나 물으셨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단다. 너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자식이 부모말씀을 따르는 것은 물론 효행입니다. 이렇듯 당연한 말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고개를 옆으로 저

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그저 네, 네 하고 듣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옳은 말은 따르고 거른 말은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그렇다.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은 효가 아니다. 그리고 자식은 옳당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진정한 부모가 아니다. 자식을 바르게 하기 전에 자식이 따를 수 있도록 먼저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바라기 전에 베풀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날 이런 문제도 많은 부분 부모나 옛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번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옛 남부경찰서 부지 활용을

대연동 혁신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위치한 옛 남부경찰서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얼마 전 여러 언론을 통해 경찰서에서 설치한 작품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작품성도 뛰어나 보는 나 역시 좋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그 좋은 일지 조건과 시설을 얻게 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다.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 사실 옛 군수사기지 부지도 문현금융단지 조성과 정부기관 지방이전

리에 밀려 공원이화 된다는 소문과는 달리 아파트 단지로 조성됐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원이시설이 들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제 부산시나 경찰청에서 옛 남부경찰서 부지 활용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곳이 주민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길 바란다. 관련부서에서는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옥경 (우암동)

### 가파른 도로 주차 위험

감만2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우아파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보도블록 예산 요청 중

동성하이타운 일원에 보도블록 설치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대연6동 오민현님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본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특별교부세로 시행 중에 있는 '동성하이타운 앞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된 부분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잔여부분을 시행코자 지속적으로 예산요청 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 서호진>

우리 구에서는 평일(주·야), 주말(토·일) 불법주차 단속반을 편성 운

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상시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뿐 아니라 구민의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도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김미선>

### 차량 통행 불편 해소

차선 막는 수거작업을 단속해 달라는 대연5동 황승환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시설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선별하여 반입하여야 하나 도심지내 재활용품을 선별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인근 도로변 등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선별과정에서 도로점용에 따른 통행불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분류작업 시 가능한 한 주민 및 차량의 통행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통보 조치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라도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있을시 연락주시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박중호>

### 독자의詩

### 연필



류수정

대연중-2

곰개 뺨은 다리 뽀족한 각선미 뽀얀 손뼉 감개 타고르는 마음

내가 지나가면 까이만 흔적이 남는다

나는 잘 꺾어진 연필이다



### 수필마을

## 애리조나의 사보텐



백봉묵(수필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은 옛속의 불씨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었는지 되살아나 불꽃처럼 튀었다. 공항에서 아들의 뒤통수를 보고 돌아서니 진직 적극적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지 못한 후회가 밀물처럼 서서히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서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미국 비행학교 쪽에 국제전화를 해봤지만 깜깜무소식이었다. 아들이 미국에 건너간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그동안 안락했다는 전화를 하고 수차례 이메일로 사

진과 글을 보내왔다. 모래바람이 몰아다닐 것 같은 설렁한 마을 풍경,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숨이 턱 막히고 갇기가 힘들다는 푸념을 전해왔다. 처음 뒤통지에 탑승한 비행훈련에 크게 들떠 있었고, 연이은 비행훈련이 적성에 맞을뿐더러 미국 교관이 소질이 있다고 칭찬을 해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이번엔 멀리 떨어진 다른 공항을 혼자서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쁨을 전해왔다. 난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단박에 답신을 보냈다. 하지만 아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가끔 비행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생활과 취업 상황을 눈여겨보곤 한다. 국내 항공사의 수습조종사들이 이곳 비행학교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들처럼 직장을 관두고 아름다운 비행을 하고 싶어 꿈을 찾아 애리조나로 온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다. 그들에 비해 아들은 갈 길이 멀다.

처음엔 비행교관의 칭찬에 다소 의기양양하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처음 어려운 과정에 접어들자 아들의 말투가 곱지 않다. 외지에서 홀로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들은 애리조나의 폭염처럼 뜨거운 맛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애리조나 사보텐에 있는 비행학교는 사방이 트이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 겨울철에도 기온이 좀처럼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기후 등으로 비행훈련에 적지 않은 모암이다. 아들이 수시로 안부 차 보내준 사진엔 쪽 뺨은 활주로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듯 펼쳐져 있었고, 공중에서 본 황량한 들과 마을 풍경, 서부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낯익은 산이 단골로 등장했다. 성인의 키를 웃도는 사보텐도 있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삼지창을 들고 서 있는 사보텐을 처음 봤을 때 매우 이국적이라 관심 밖이었지만 여러 번 볼수록 대단한 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쑥 그리고 차츰, 그의 생존력을 높게 보기 시작했다. 고온 건조한 사막에서 땀 버티고 있는 녀석이니 강한 몸임엔 틀림없다.

아들이 그런 사보텐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막이란 척박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뚝 선 사보텐처럼 뜻뜻하게 자신의 의지를 지켜갔으면 싶다.



따라 갈아입는 수목들과 화초를 보며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수목들의 꺾말이 부러져 넘어져 있는데도 있고 수목의 이름과 맞지 않는 꺾말이 우뚝 서 있을 때도 있다.

작은 화초들이 제 생명을 다하고 고개를 떨어트리고 나면 그 자리엔 텅 빈 허물만 남아 있는 데 이름표를 꺾말만 꽃혀 있어서 안타깝다.

관련부서에서 수목과 화초에 맞는 이름표를 달아 세워 주었으면 고맙겠다. 또한 관리에도 좀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

윤말선(문현4동)

### 나의 생각

### 국민스포츠포터 거듭나는 골프



진승록

골프 지도자의 길로 인생의 진로를 바꾼 지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는가.

처음에는 남구 구민 누구나 저렴하고 부담 없이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골프 저변확대를 위해 시작하였지만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했다. 남구 생활체육회 골프교실을 5년간 운영하면서 구비 한 톨 지원 없이 구민 누구나 골프를 접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에 전념했다.

1달 수강료 80,000(레슨비 포함)원을 받고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지도한 결과 1,500명의 수강자를 배출시켰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골프는 대중화와 보편화 및 일반화된 국민 스포츠로 거듭났다. 또한 스크린 골프(Screen Golf)가 출현하면서 회식 문화도 술집 대신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사원 간에 단결과 친목을 다지는 새로운 회사풍토가 정착됐다.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신문화가 형성됐다. 이제는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체육으로 완전히 정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朴景鎬 / 편집장 河仁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필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골프지도전문강사